

# ‘좋은 학교’ 있어야 지방이 산다...돌봄·교육·입시 다각적 지원

##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계획’ 발표 돌봄 확충·대학 지역인재전형 확대 ‘입시명문고’ 부활 학교 서열화 우려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시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산업·거주여건·문화생태계 정비와 함께 교육여건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 거주여건을 개선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인구를 늘리려면 결국은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젊은 부부들이 요구하는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 부담을 줄

이는 한편, 대학 인기학과와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최근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가운데 교육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역 산업을 발전시켜도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인구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교육 분야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선정하고, 유아교육과 돌봄, 초·중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학교육 내실화 등 여러 방면에서 종합 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선 젊은 부부의 수요가 큰 유아교육과 돌봄 분

야의 경우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유치원·어린이집 교육과정과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 식이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첨단분야 등 인기학과와 지역인재 입학전형을 확대해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지역 산업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은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시안을 검토·평가·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기초·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신청하면 구체적

인 혁신 계획을 검토해 2024년에 특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역 특성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구상하는 모델도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특구 운영 기간은 3년이며,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특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돌봄·교육환경이 좋은 학교를 키워 지역에 정주하는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경쟁력 있고 평판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열과 입시경쟁을 고려하면 ‘좋은 학교’의 기준은 결국 대학 진학 실적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최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을 중시하는 ‘입시 명문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고교 서열화가 심해질 수 있고, 특구로 지정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의 격차가 더 확대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의학 계열을 제외하면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 정도의 경쟁력을 갖는 대학이 부족해 결국 지방 정주 인구 확대에 이어지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학교 규제를 풀어서 자율성을 부여하면 학교 서열화와 경쟁을 기증할 수 있다”며 “교육이라는 것은 보편성과 다양성이 중요한데 특구를 만들면 일부 학생들에게(지원이) 편중되고 학교 간 서열과 경쟁을 부추겨 오히려 다양성을 저해하고 교육이 획일화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전남교육청, ‘2024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적극 홍보

### 대전 ‘지방시대 엑스포’서 교육청 단독부스 운영

전남교육청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비전과 성과를 나누기 위해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2024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를 주제로 참여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우수사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교육혁신 및 인재 양성 정책 등이 소개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엑스포 기간 교육청 단독부스는 유일하게 단독부스를 운영하며 2024년 개최 예정인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를 홍보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4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중심 미래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장에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 계층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사흘간 열린 엑스포장은 정부 부처 장관 및 전국 17곳 시도지사·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해 대화하는 장인만큼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



김대중(오른쪽) 전남도교육감이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현장에 설치된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홍보 부스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다. 이와 함께 힘 정부에서도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 우수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이 공동 개최하는 2024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는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미래사회에 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담론의 해법을 공생의 글로벌교육에서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꾸며지는 학술·전시·체험의 복합 무대이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박람회추진단을 구성해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지방소멸시대 우리 전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역성장의 동력을 찾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시도 및 타 교육청도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에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끌어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정성택 전남대총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전남대도서관 개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테이블을 커팅하고 있다. <전남대 제공>

## ‘학술·정보의 보고’ 전남대 도서관 70주년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 공간...글로벌대학 뒷받침 최선

전남대학교 도서관이 개관 70주년을 맞았다. 전남대 도서관(관장 장우권)은 최근 전남대 정보마루에서 정성택 총장과 교수, 학생, 강은미 국회의원총총장회, 도서관 발전기금 기부자, 고문헌 위탁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도서관 70년사 봉정식, 기념식 개막행사 등을 열었다.

정성택 총장은 축사에서 “전남대 도서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외적 확장뿐 아니라 인재 양성과 지식연구, 상생발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대학 발전을 이끌어왔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성장 동력이자 지식정보의 허브,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 공간으로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대 도서관은 개교 이듬해인 1953년 대학 본부로 사용하던 의과대학 2층 교실 한 칸에서 해외에서 기증한 2072권의 도서로 출발해 현재 200만권의 장서를 보유하는 등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7개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대학의 핵심기관으로 성장했다.

또 전국 최초로 주제별 담당사서제, 학위는

문 원문 DB구축 등 미래 지향적인 선서비스를 도입해 대학 구성원의 연구와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각종 자료와 시설을 지역민에게 개방해 등록인원이 현재 4700여명에 이르며, 지역 대표 독서문화프로그램 ‘광주전남이 읽고 특하다’를 통해 지역 내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대 도서관은 계당(溪堂) 위탁 고문헌 원문서비스, 송파(松坡) 오맹고 선생 고문헌 위탁관리를 비롯해 녹우당, 필암서원 등의 보물급 고문헌 자료의 디지털화와 이용서비스에 나서는 등 향토자료 관리와 보존 및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개관한 정보마루는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포함한 학술 및 전시회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전남대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장우권 도서관장은 “지난 7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술과 정보의 보고(寶庫)로서 글로벌대학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조선대, 서울대·대구대와 상호우호 증진 교류·협력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는 최근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소(소장 기광서)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원장 김범수), 대구대 인문과학연구소(소장 권웅상)와 상호 우호를 증진하고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조선대 사회과학대학 1층 영제실에서 각각 진행된 두 연구소와의 협약식에는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소 기광서 소장을 비롯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범수 원장, 대구대 인문과학연구소 권

웅상 소장 및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연구보고서·간행물 상호 제공 및 정보·자료의 공동 활용 ▲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이슈 발굴 및 공동 연구 수행 ▲ 연구자료 공유·활용 및 학술정보 교류 ▲ 학술회의·워크숍 공동 개최 및 상호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각자의 연구 영역에서 역량을 강화하면서 상호 발전을 위해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협약(MOU) 체결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 힘 함께 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